



주간 Top Picks 26.10.26

2026. 10. 26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핵심 요약

- AI · 반도체 · 방산 등 10종목, 실적 상회 후 가이드نس 전환점
- 메모리 · 설비투자 원가압박이 마진 가이드نس 공통 변수
- 밸류에이션 저평가 다수, 추정치 상향 지속 여부가 관전포인트

#	티커	기업명	1W%	1M%	6M%	1Y%	코멘트
1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0	-18.9	67.3	300.7	원가 고착 속 증익 지속하나 이제 가이드نس가 변수
2	MSFT	마이크로소프트	-1.7	1.6	23.5	0.2	AI 수익화 본격화되나 단기 마진 악화 불가피
3	NVDA	엔비디아	-2.8	-6.3	-2.6	13.3	2028년까지 수요 강세지만 메모리 가격이 마진 압박
4	LMT	록히드 마틴	10.2	16.3	17.7	24.5	수주 사상최대지만 단기 자금난 · 마진 개선 정체
5	ISRG	인튜이티브 서지컬	4.4	11.6	-4.0	-17.2	가이드نس 상향도 프로시저 성장 부진으로 성장 축 전환
6	TMO	테르모 피셔 사이언티픽	-0.8	-0.2	44.0	17.7	성장 가속 · 마진 최고, 밸류에이션 재평가 시점
7	RTX	RTX	-0.6	0.8	10.2	6.9	높은 백로그 · 연속 상향도 관세환급 의존 · 현금흐름 악화
8	MRVL	마벨 테크놀로지	-3.6	-12.8	44.4	171.6	마진 우려는 해소했으나 사업 편중도 · 배수 프리미엄이 과제
9	TMUS	티모바일	-6.1	-11.4	-19.8	-32.7	이익 정상화 · CF 개선에도 순증 둔화 · 해지율 상승이 변수
10	V	비자	1.2	11.0	31.7	17.4	부가가치 성장 톱라인 견인했으나 월드컵 제외 정규화 흐름 주목

주: 음영은 신규 편입 종목

기준일: 26.10.26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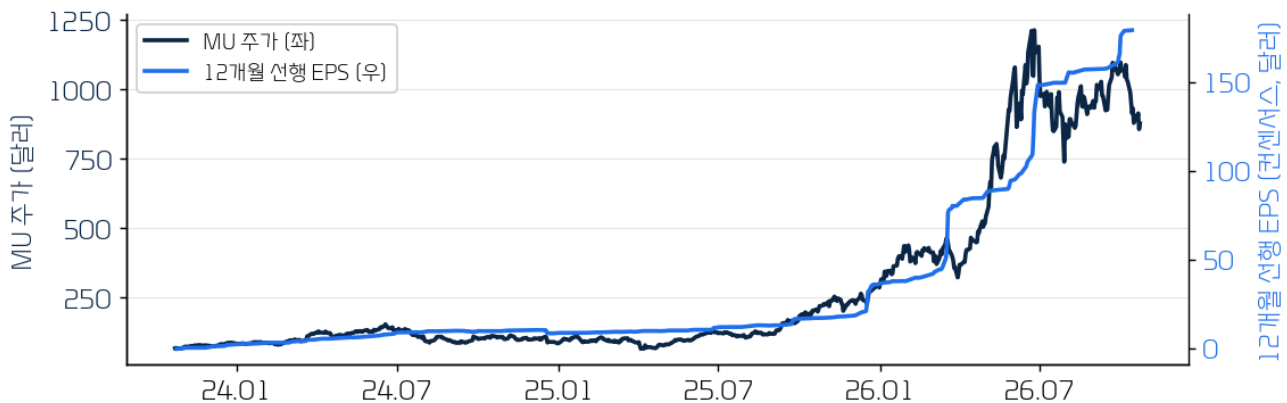
이번 주 상위 종목은 AI 인프라 밸류체인(마이크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마벨)과 방산(록히드마틴, 레이시온), 헬스케어·생명과학(인튜이티브서지컬, 써모피셔), 통신·결제(T모바일, 비자)로 나뉘지만 관통하는 줄기는 뚜렷하다. 대부분 종목이 직전 분기 실적에서 우리 모델 예측을 상회했고, 그 서프라이즈를 만든 동인(원가 레버리지, 가속하는 수주, 신사업 확장)이 다음 분기에도 이어질지가 투자 판단의 핵심으로 넘어왔다. 반도체·클라우드 쪽에서는 공통적으로 매출총이익률 가이드스가 처음 하향되거나 정체되는 신호가 나타나 서프라이즈 주도 국면이 끝나가는 모습이고, 그 대신 밸류에이션이 과거 평균보다 낮은 구간에서 안전마진을 제공하는 종목이 많다. 방산·헬스케어 쪽은 수주·설치기반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익으로의 전환 속도가 매출 성장보다 느리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리스크 요인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 리스크는 설비투자·원가 압력이 이익 성장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론·엔비디아·마벨은 메모리 가격 상승이나 부품 원가가 매출총이익률 가이드스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처음 등장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센터 설비투자 확대가 잉여현금흐름을 압박하고 있다. 레이시온·인튜이티브서지컬은 이번 분기 이익에 관세 환급이나 소송 합의금 같은 일회성 항목이 섞여 있어 기저 수익성 판단에 주의가 필요하고, 록히드마틴은 F-35 프로그램의 자금 승인 지연이라는 개별 변수가 단기 현금흐름에 걸려 있다.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마이크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T모바일)과 높은 종목(마벨, 써모피셔)이 혼재돼 있어, 추정치 상향 사이클이 꺾일 경우 포트폴리오 내 디레이팅 폭이 종목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 MU (반도체) — 높음

그림 1 MU 주가·12개월 선행 EPS



자료: LSEG (주가 · I/B/E/S 12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 ·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코멘트

마이크론은 D램·낸드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AI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매출이 1년 만에 10배 넘게 늘며 최대 사업부로 올라선 점이다. 매출총이익률이 네 사업부 모두 80%대를 기록했고, 회계기간 보정 기준 매출 증가 속도(+21.5%)가 원가 증가 속도(+4.2%)를 크게 앞질러 이익이 레버리지를 타고 늘었다. 직전 분기 예측과 실제 실적이 대체로 일치해 모델 신뢰도도 확인됐다. 다만 가이드스 초과폭이 줄고 매출총이익률 가이드스가 12개 분기 만에 처음 하향 방향을 가리킨 점은 서프라이즈 국면의 끝을 시사하며, 순현금과 낮은 PER이 이런 우려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고 본다.

투자 포인트

- 데이터센터 매출 전년 대비 +1,041.7%로 최대 사업부 등극, 네 사업부 전원 80%대 매출총이익률은 수요가 전방위로 확산됐음을 보여준다.
- 차기 분기 가이드스(매출 615억 달러)가 스트리트의 그 다음 분기 추정치보다도 높아 추정치 상향 여지가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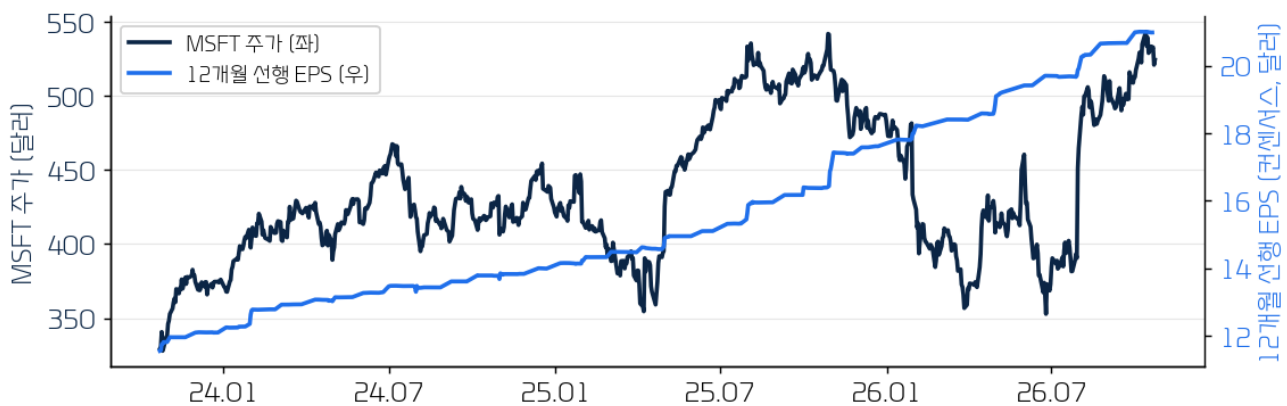
- 순현금 683억 달러 · 분기 이자비용 0, 12개월 선행 PER 6.58배는 사이클 지속성에 대한 회의가 가격에 반영돼 있음을 의미한다.

모니터링

- 매출총이익률 가이던스가 86.25%로 12개 분기 만에 처음 하향, 메모리 스펙다운 시 웨이퍼 재배분 가능성이 콜에서 처음 언급됐다.
- 설비투자가 FY26 실집행의 두 배 경로로 가속되는 반면 자사주 매입은 미미해 잉여현금흐름과 환원 사이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2. MSFT (소프트웨어/클라우드) — 중간

그림 2 MSFT 주가·12개월 선행 EPS



자료: LSEG (주가 · I/B/E/S 12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 ·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코멘트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Azure)와 생산성 소프트웨어(M365)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AI 수익화가 파일럿 단계를 지나 상업적 규모에 올라섰다는 점이 이번 실적의 핵심이다. Azure 성장률이 40%에서 43%로 재가속했고, 코파일럿 유료 시트가 전분기 대비 50% 늘며 관련 매출도 빠르게 증가했다. 직전 분기 실제 매출이 우리 예측 상단을 웃돌아 과소추정으로 평가됐는데, 방향은 맞았지만 규모를 낮게 잡은 오차였다. 잔여계약이 84% 늘며 향후 매출 가시성을 뒷받침하지만, 매출총이익률이 7분기 연속 하락하고 다음 분기 설비투자가 5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고된 점은 잉여현금흐름의 변동성 요인으로 남는다. 12개월 선행 PER이 5년 평균보다 30% 넘게 낮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분명하다.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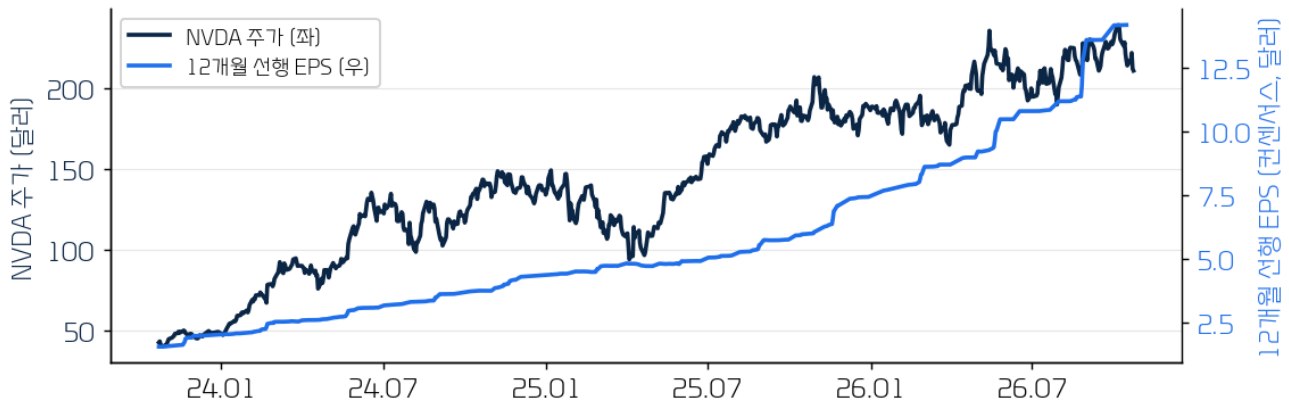
- Azure가 고정환율 기준으로 전년 대비 +43%로 가속, 연간 매출 1,000억 달러를 처음 넘겼다.
- 코파일럿 유료 시트가 전분기 대비 50% 늘며 AI 수익화가 가속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잔여계약 6,780억 달러(+84%)로 6분기 연속 확장, 12개월 선행 PER은 5년 평균 대비 30% 넘게 낮다.

모니터링

- 매출총이익률 7분기 연속 하락, AI 인프라 원가 · 전력 부담이 구조적 마진 압박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 다음 분기 설비투자 500억 달러 이상 예고로 영업현금흐름 대비 잉여현금흐름이 이미 얇아진 상태다.

3. NVDA (반도체) — 중간

그림 3 NVDA 주가·12개월 선행 EPS



자료: LSEG (주가 · I/B/E/S 12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 ·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코멘트

엔비디아는 AI 가속기(GPU)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기업으로, 데이터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117% 늘며 10개 분기 연속 순차 성장을 이어갔다. 직전 분기 실제 실적이 우리 예측 상단을 넘어 레벨을 과소추정했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재무책임자가 처음으로 다음 회계연도 매출 약 70% 성장이라는 예비 전망을 제시하며 수요 가시성이 2028년까지 늘어났다는 점이다. 아마존웹서비스와의 대규모 GPU 추가 배치, 미국 정부용 인프라 공급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다만 다음 분기 총마진 가이드스가 처음 하향됐고, 그 원인을 경영진이 메모리 가격과 부품 원가로 직접 지목했다는 점이 이번 분기의 분기점이다. 잉여현금흐름이 전분기의 절반 이하로 줄고 주주환원이 분기 현금창출을 넘어선 점도 확신도를 중간에 묶는 이유다.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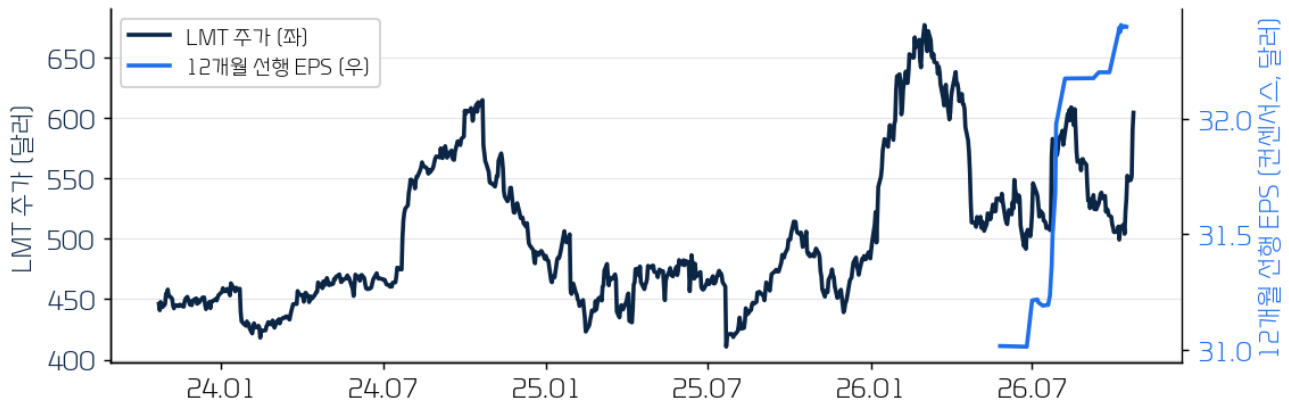
- 데이터센터 매출 전년 대비 +117%, 다음 분기 가이드스가 컨센서스를 상회해 수요 둔화 우려를 걷어냈다.
- 재무책임자가 처음 제시한 다음 회계연도 약 70% 성장 전망은 아직 예비 단계지만 현재 컨센서스 대비 상향 여지를 시사한다.
- 12개월 선행 PER 19.1배로 5년 평균의 절반 수준, 목표주가 평균이 발표 시점 주가를 크게 상회한다.

모니터링

- 다음 분기 총마진 가이드스가 1%포인트 하향됐고 원인은 메모리 가격 여건 — 수요가 아닌 원가 이슈로 서사가 이동했다.
- 잉여현금흐름이 전분기의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주주환원은 그보다 많아, 환원 정책의 지속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4. LMT (방산) — 중간

그림 4 LMT 주가·12개월 선행 EPS



자료: LSEG (주가 · I/B/E/S 12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 ·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코멘트

록히드마틴은 F-35 전투기와 미사일 · 방공체계를 생산하는 방산 대표주로, 수주잔고가 전분기 대비 27% 늘어난 2,92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점이 이번 실적의 중심이다. 미사일 · 화력 부문이 전년 대비 24% 성장하며 마진을 지켰고, 직전 분기 예측이 매출 · EPS 모두 범위 안에 들어와 모델의 적중도도 확인됐다. 다만 사업부문 영업이익률이 10.76%로 두 분기 연속 정체돼 매출 가속이 이익으로 충분히 옮겨가지 못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더 즉각적인 변수는 F-35 Lot 20 선행취득계약의 발생 원가가 계약 승인 · 자금 한도를 넘어섰다는 회사의 고지로, 추가 승인이 지연되면 단기 실적과 현금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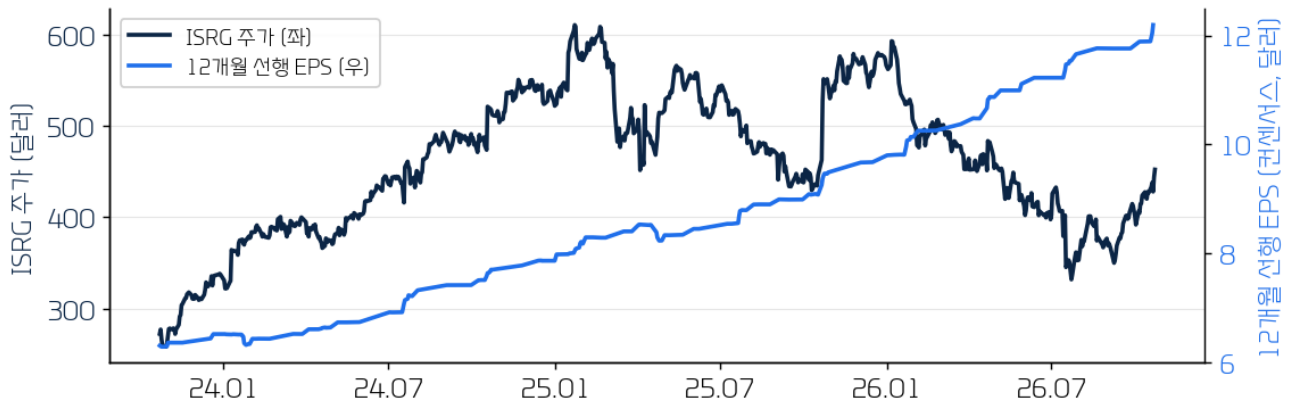
- 수주잔고 2,920억 달러로 FY26 매출 가이드스 중간값의 약 3.6년치에 해당, 525억 달러 규모 PAC-3 MSE 다년 계약이 반영됐다.
- F-35 10년 프레임워크로 미국분 최소 850대가 보장돼 최대 프로그램의 장기 물량 가시성이 확보됐다.
- 9개월 누계 잉여현금흐름이 전년보다 늘었고 4분기 요구치도 전년보다 낮아 연간 가이드스 달성 난도는 제한적이다.

모니터링

- F-35 Lot 20의 발생 원가가 계약 승인 · 자금 한도를 넘어섰다는 점이 단기 최대 변수다.
- 사업부문 영업이익률이 두 분기 연속 10%대 초반에 머물러 마진 복원 속이 멈춰 있다.

5. ISRG (헬스케어/의료기기) — 중간

그림 5 ISRG 주가·12개월 선행 EPS



자료: LSEG (주가 · I/B/E/S 12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 ·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코멘트

인튜이티브서지컬은 다빈치 수술로봇을 만드는 의료기기 기업으로, 매출이 처음으로 분기 30억 달러를 넘고 비교 가능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가속한 점이 눈에 띈다. 직전 분기 실제 실적이 우리 예측 상단을 모두 넘어 레벨을 상당히 과소추정했는데, 시스템 배치 대수와 운영리스 매출의 가속을 놓친 오차였다. 다만 이번 분기 EPS에는 관세 환급과 반독점 소송 합의금이라는 두 개의 일회성 항목이 상반된 방향으로 섞여 있어 숫자를 그대로 대표치로 쓰기는 어렵다. 매출총이익률 가이드언스가 네 분기 연속 상향된 반면 미국 다빈치 수술 건수 성장률은 코로나 이후 최저인 10%로 내려앉아, 성장의 축이 시술 건수에서 장비 배치로 옮겨간 모습이다. 밸류에이션은 12개월 선행 PER이 5년 평균보다 30% 가까이 낮은 구간에 있다.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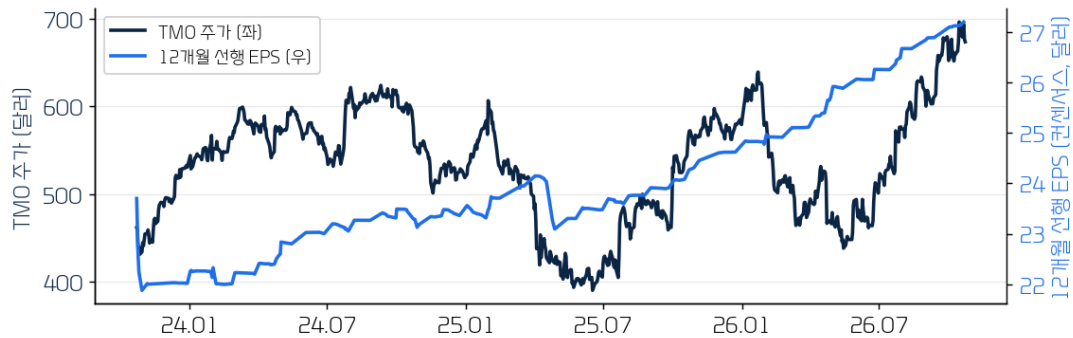
- 매출 30.5억 달러(+22%)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 비교 가능 성장률이 5%에서 7%로 두 분기 연속 가속했다.
- 다빈치 배치 546대(전년 427대)로 시스템 매출이 +30.3% 늘며 설치기반 확대가 뚜렷하다.
- 12개월 선행 PER 36.6배로 5년 평균보다 약 30% 낮은 구간에서 자사주 29.4억 달러를 집행했다.

모니터링

- 미국 다빈치 수술 건수 성장률이 코로나 이후 최저인 10%로, 강한 장비 배치와의 괴리가 두 분기째 풀리지 않고 있다.
- 반독점 집단소송 합의의 법원 승인과 금지적 구제 조항이 아직 미확정이다.

6. TMO (생명과학/진단) — 중간

그림 6 TMO 주가·12개월 선행 EPS



자료: LSEG (주가 · I/B/E/S 12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 ·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코멘트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은 생명과학 연구·진단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유기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가속하며 조정 EPS가 시계열 최고치를 경신한 점이 이번 실적의 핵심이다. 직전 분기 실제 실적이 우리 예측 상단을 소폭 넘겨 보수적 가이드언스 운용이 반복되리라는 판단이 적중했다. 조정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120bp 오르고 누적 잉여현금흐름 진척률도 개선돼, 과거 지적했던 현금흐름 미달 우려는 상당 부분 걷혔다. 다만 분기 서프라이즈 대비 연간 가이드언스 상향폭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패턴이 네 분기 연속 반복되고 있고, 12개월 선행 PER이 5년 평균보다 10% 비싼 구간으로 역전돼 투자 판단의 축이 실적보다 밸류에이션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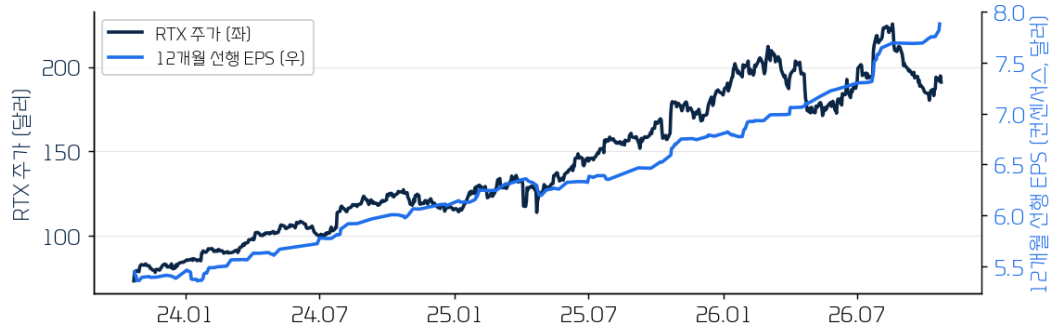
- 매출 121.4억 달러(+9.1%, 유기 +6%)로 컨센서스를 상회, 유기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가속했다.
- 조정 영업이익률 24.5%(+120bp)로 제공 분기 중 최고 —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을 앞서며 레버리지가 작동했다.
- FY26 가이드언스가 매출·EPS·잉여현금흐름 모두 상향됐고, 누적 잉여현금흐름 진척률도 전년보다 개선됐다.

모니터링

- 분기 서프라이즈 대비 연간 가이드언스 상향폭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패턴이 네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 생명과학솔루션 부문 성장률이 크게 둔화돼 인수 효과 소멸인지 수요 약화인지 다음 분기 확인이 필요하다.

7. RTX (방산/항공엔진) — 중간

그림 7 RTX 주가·12개월 선행 EPS



자료: LSEG (주가 · I/B/E/S 12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 ·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코멘트

레이시온테크놀로지는 방산 · 항공 엔진을 아우르는 복합 방산기업으로, 수주잔고가 3,4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점이 눈에 띈다. 조정 EPS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지만 여기에는 관세 환급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환급을 제외한 수치로 봐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직전 분기 실제 실적이 우리 예측 상단을 넘어 수익성 개선 속도를 과소추정했을 만큼 세 사업부 모두 마진이 확장됐다. 다만 가이드언스가 네 항목 동시에 상향됐지만 상향폭의 상당 부분이 환급분이고, 다음 분기 내재 EPS가 컨센서스와 같은 수준이어서 추가 상향 동력은 제한적으로 본다.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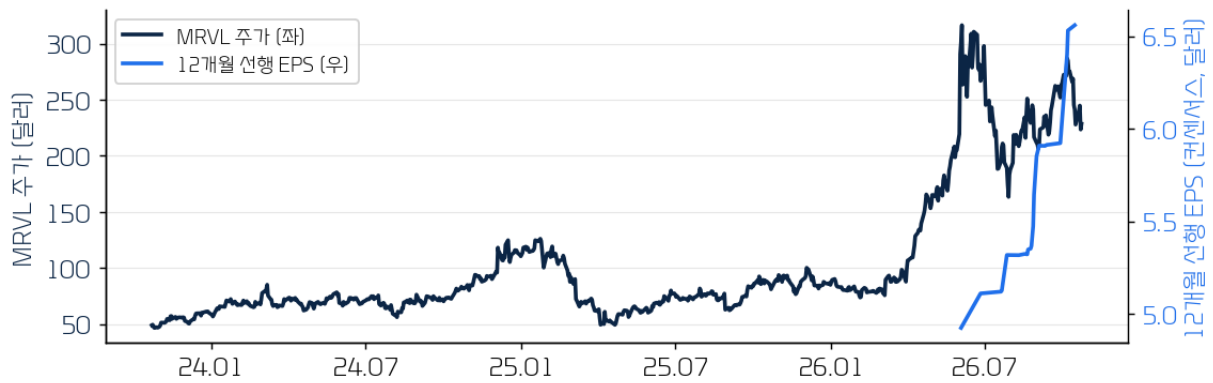
- 수주잔고 3,4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방산 백로그가 한 분기 만에 1,190억 달러에서 1,640억 달러로 늘었다.
- 세 사업부 모두 두 자릿수 성장과 마진 확장을 동시에 기록, 콜린스 조정 영업이익률이 560bp 올랐다.
- FY26 가이드언스가 매출 · EPS · 잉여현금흐름 등 네 항목 동시에 상향됐다.

모니터링

- 이번 분기 증익의 상당 부분이 관세 환급과 일회성 항목에서 나와 반복성이 불확실하다.
- 잉여현금흐름이 전년 대비 -47%로 줄고 다음 분기 내재 EPS도 컨센서스와 같은 수준이어서 추가 서프라이즈 여력이 크지 않다.

8. MRVL (반도체) — 중간

그림 8 MRVL 주가·12개월 선행 EPS



자료: LSEG (주가 · I/B/E/S 12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 ·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코멘트

마벨테크놀로지는 데이터센터용 맞춤형 반도체를 설계하는 반도체 기업으로, 직전 분기 예측이 실제 실적과 거의 일치해 모델 신뢰도가 높게 확인된 종목이다. 매출 순차 증가율이 네 분기 연속 가팔라졌고, 세 분기 연속 후퇴했던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처음 반등해 직전 리포트에서 지적했던 두 우려가 동시에 완화됐다. 경영진이 제시한 다음 두 개 회계연도 매출 프레임이 컨센서스를 모두 앞질러 다섯 번째 연속 상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데이터센터 매출 비중이 79.3%까지 올라 단일 축 의존도가 높아졌고, 다음 분기 매출총이익률 가이드스가 실제치보다 낮게 제시된 점, 12개월 선행 PER이 5년 평균보다 52% 비싼 점이 위험 · 보상 비율을 좁히는 요인이다.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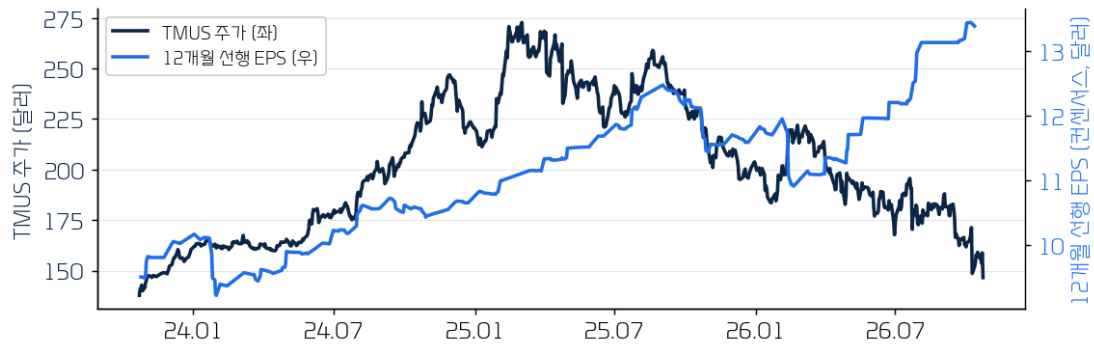
- 매출 순차 증가율이 네 분기 연속 상승(3.4%→13.3%)하며 데이터센터 매출이 순차 증가분 전액을 창출했다.
- 영업이익률이 세 분기 후퇴 뒤 처음 반등해 매출 증가 속도가 비용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질렀다.
- 경영진이 제시한 다음 두 개 회계연도 매출 프레임이 컨센서스를 각각 3.8% · 6.4% 상회, 다섯 번째 연속 상향이다.

모니터링

- 데이터센터 매출 비중이 79.3%까지 올라 특정 고객 · 프로그램 의존도가 높아졌다.
- 12개월 선행 PER이 5년 평균보다 52% 비싼 구간이어서 추가 상승은 추정치 상향의 지속성에 좌우된다.

9. TMUS (통신) — 중간

그림 9 TMUS 주가·12개월 선행 EPS



자료: LSEG (주가 · I/B/E/S 12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 ·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코멘트

T모바일은 미국 3위권 이동통신 사업자로, 조정 영업이익률이 220bp 회복하고 핵심 조정 EBITDA가 분기 최고치를 기록하며 유에스셀룰러 통합 비용에 눌렸던 이익 라인이 정상화 궤도에 들어섰다. 잉여현금흐름 가이드스가 상향됐고 상반기 누적 진척률도 연간 상단의 절반을 넘겨, 보수적 가이드스 설정 후 상회라는 패턴이 반복됐다. 직전 분기는 매출이 예측 하단을 소폭 밑돌고 EPS는 상단을 웃도는 방향 불일치로 예상을 하회한 것으로 평가됐는데, 장비 매출 약세와 마진 반등 속도를 동시에 잘못 짚은 오차였다. 가입자 순증이 전년 대비 13% 줄고 해지율도 소폭 올라 성장 서사에 균열이 생긴 점이 확신도를 중간에 두는 근거다.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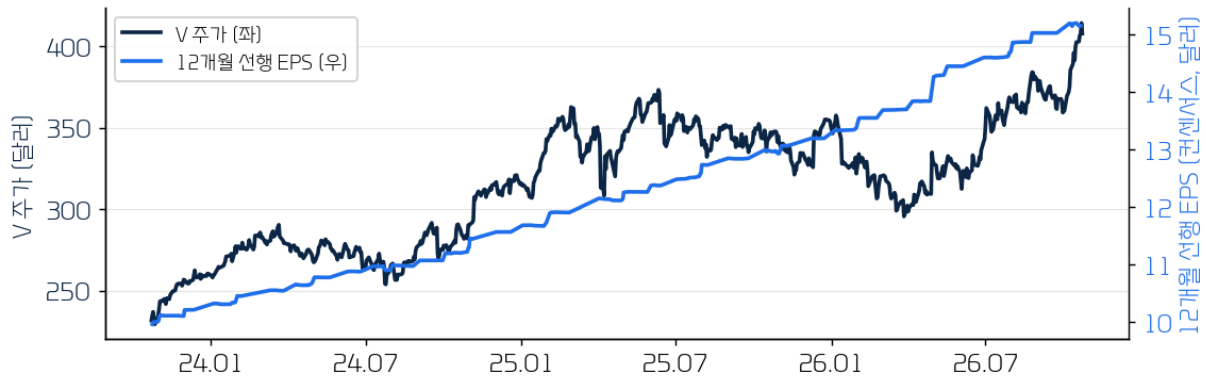
- 조정 영업이익률이 220bp 회복, 핵심 조정 EBITDA가 전년 대비 +11.7%로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 잉여현금흐름 가이드스가 상향됐고 상반기 누적 진척률이 연간 상단의 절반을 넘겼다.
- 12개월 선행 PER 15.6배로 5년 평균보다 31% 낮은 구간에서 분기 주주환원 33억 달러를 집행했다.

모니터링

- 후불 가입자 순증이 전년 대비 13% 줄고 해지율도 소폭 올라 성장 둔화 신호가 뚜렷해졌다.
- 향후 주파수 경매 대비 자본 확보 필요성이 중기 설비투자 재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0. V (결제) — 중간

그림 10 V 주가·12개월 선행 EPS



자료: LSEG (주가 · I/B/E/S 12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 ·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코멘트

비자는 글로벌 결제망을 운영하는 결제 기업으로, 부가가치 서비스 매출이 고정환율 기준 34% 늘며 세그먼트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점이 이번 실적의 핵심이다. 매출과 조정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보수적 가이드언스 이후 상회라는 패턴을 이어갔고, 직전 분기 실제 실적이 우리 예측 상단을 넘어 부가가치 서비스의 가속 강도를 과소추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34% 성장의 상당 부분은 2026년 월드컵 관련 마케팅 서비스 수요가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벤트가 끝난 뒤 성장률이 정규화되는 폭이 다음 분기의 관전 포인트다. 인력 감축에 따른 퇴직비용이 이번 분기에 선반영돼 중기 비용 레버리지 회복 여지가 있으나 절감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않았다.

투자 포인트

- 부가가치 서비스 매출이 고정환율 기준 +34%로 세그먼트 최고 성장률을 기록, 고마진 반복 수익 비중이 확대됐다.
- 결제 볼륨 +10%, 크로스보더 볼륨 +12%(고정환율 기준)로 글로벌 소비 탄력이 유지되고 있다.
- 분기 자사주 매입과 배당 합산 62억 달러 환원, 잔여 매입 한도 284억 달러가 다년 EPS 성장을 지지한다.

모니터링

- 부가가치 서비스 34% 성장의 상당 부분이 월드컵 특수로 추정돼, 이벤트 종료 후 정규화 폭을 확인해야 한다.
- 고객 인센티브 증가율이 순매출 성장률을 웃돌고 있어 수익률 압박 요인으로 남아 있다.

다음 주 관찰 포인트

- 마이크론 · 마벨 등 반도체 업종의 메모리 가격 · 원가 압력이 매출총이익률 가이드언스에 추가로 반영되는지 확인한다.
- 마이크로소프트 ·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설비투자 집행 규모와 그에 따른 잉여현금흐름 변화를 지켜본다.
- 레이시온 · 록히드마틴의 F-35 · 관세 환급 관련 일회성 항목 반복 여부와 백로그의 실제 매출 전환 속도를 확인한다.
- 비자 부가가치 서비스 성장률의 월드컵 효과 정규화 폭을 점검한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